

『蒙山和尚法語略錄』의 서지적 연구*

A Study on Bibliography of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김 은 진 (Kim, Eun Jin)**

송 일 기 (Song, Il Gie)***

◁ 목 차 ▷

| | |
|------------------|------------------|
| 1. 서 언 | 3.2 한문본의 재편과 간행 |
| 2. 법어약록의 전래와 편성 | 4. 현전 판본의 서지적 분석 |
| 2.1 몽산법어의 존재문제 | 4.1 간행시기 및 지역 분석 |
| 2.2 사법어와의 관련문제 | 4.2 간행 참여자 분석 |
| 2.3 법어약록의 편성내용 | 5. 결 언 |
| 3. 언해본 및 한문본의 유통 | <참고문헌> |
| 3.1 언해본의 언해와 간행 | |

< 초 록 >

이 논문은 조선 전기에 활발한 간행을 보인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法語略錄』(『법어약록』으로 약칭)을 대상으로 서지학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몽산 덕이는 송·원대 승려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 우리나라 불교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책은 가장 많은 판본이 현전하지만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만 되었을 뿐 집중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없다. 연구 결과 이 책은 고려 말 전해진 필사본 또는 간행본 형태의 몽산의 법어를 1467년 간경도감에서 혜각존자 신미가 약록하고 언해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어약록』의 언해 대상이 되는 몽산의 법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어』를 편찬한 나옹혜근의 제자들 또한 간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어약록』이 『사법어』와 합철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언해본의 경우 한문본과는 다르게 보제존자 나옹의 법어가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해본은 이 후에 여러 차례 중간되었고 한문본은 1525년이 되어서야 대광사본을 시작으로 17세기까지 간행되었다. 현존 판본은 현재 언해본 11종, 한문본 28종으로 총 39종이 현전하고 있다. 언해본과 한문본은 행자수를 기준으로 2계통을 형성하고 있고 전체의 6종을 제외한 33종이 『사법어』, 『초발심자경문』, 보제존자의 법어와 합철되어 존재하고 있어 몽산의 사상적 계승 내력을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박사과정(kejtony@naver.co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1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책은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지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는데 이는 『육도보설』의 간행경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要語: 몽산화상법어약록, 몽산, 나옹, 신미, 사법어, 초발심자경문, 보제존자법어

<ABSTRACT>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bibliography of the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Mengshan was a Buddhist monk during the Song and Yuan Dynasty periods. He significantly influenced Buddhis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Mengshan's sermons were passed down in manuscript or print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era. In 1467, HyegakJonja Sinmi first compiled the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and translated it into Korean. This book consists of Mengshan's and Naong's sermons. Naong's disciples also contributed to the publishing this book. Together, they combined the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with the *Four Buddhist Sermons*, *Chobalsimjagyeongmun* and Naong's sermons. This shows that Mengshan's ideas gained popularity during this time. There are 39 known editions of this work in existence. Eleven of those are Korean translation, the others are all written in Chinese. In the Korean editions, Naong's sermon forms the last part of the book. However, in the Chinese editions, Naong's sermon precedes the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This is an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Korean translations and the Chinese versions. All known editions were published during the time period between the 15th and 17th century. And about the half of editions were published in the Mt. Jiri area. Another of Mengshan's book, *Six Teachings of Monk Mengshan*, was also published during the same time in the same area. This strongly indicates that Mengshan's ideas were popular in the Mt. Jiri area during these times.

Key words: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Four Buddhist Sermons*, *Chobalsimjagyeongmun*, Mengshan, Sinmi, Naong

1. 서 언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유교 중심의 사회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불교계는 ‘崇儒抑佛’이란 국가 시책으로 고려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때문에 불교계의 지위는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위상은 격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논의와는 다르게 조선 사찰본의 조사 및 연구 결과 당시 불교계에서는 중흥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새롭게 논의되어지고 있다. 이는 송유억불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민중의 통합을 위한 불교 대중화와 승려 교육을 위한 자구 활동이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조선전기 왕실에서는 비록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교를 신봉하고 불교계를 지원하였고 불경의 간행 및 역경 작업도 이루어졌다. 지역 사찰에서는 승려 교육 및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비록 억불정책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조치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 활동 가운데 불서의 간행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불사이었다. 불서의 간행을 지원했던 승려, 일반 양반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적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불교의 위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글이 창제된 이후 이루어진 역경 및 간행 사업은 민족문화를 창달한 중대한 사업이었다.

조선시대 불교계의 불서 간행 활동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저술이 바로 몽산(蒙山) 덕이(德異)가 남긴 어록이다. 몽산의 저술은 주로 조선 전기에 간행된 판본이 남아 있으나, 멀리는 고려에 간화선을 전수하여 조선시대 선불교를 형성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서지학, 역사학, 불교학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생애, 사상, 저술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은 물론 불교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불서의 간행과 관련한 서지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의 저술은 최근에도 계속 발굴되고

있으며 발굴된 자료를 통해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몽산의 저술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이 간행된 『蒙山和尚法語略錄』(이하 『법어약록』으로 약칭)은 그의 다른 저술인 『蒙山和尚六道普說』(이하 『육도보설』로 약칭)보다도 훨씬 많은 판본의 종수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 그러나 이 책은 대부분 다른 저술들과 합철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어약록』은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판본 상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다지 연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몽산이 조선 불교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의 저술 가운데 가장 많은 판본 종수가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어약록』에 대한 서지적 측면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다른 불서와 합철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들과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간행된 판본 가운데 현존하는 『법어약록』 판본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편성과정, 수록 체재와 내용상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법어약록의 전래와 편성

2.1 몽산법어의 존재문제

몽산의 어록은 법어, 보설, 사설 등으로 현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어는 『蒙山和尚示衆』과 같이 법어 내용 전문을 수록한 경우가 있고 이것을 초록하여 약록의 형태로 편집한 『법어약록』의 형태가 있다. 현재 『법어약록』의 전문을 수록한 책은 없으며 언해본의 저본이라 할 수 있는 1467년 이전의 한문본 또한 아직 발견된 사실이 없다. 약록되기 이전의 전문의 법어가 과연 존재했을까?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주목을 받은 고려 말 백운화상의 『직지심체요절』에는

1) 송일기, 김은진,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六道普說 板本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8), 207-233.

몽산의 법어 2편이 실려 있는데, 약록이 아닌 전량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1562년 구중사에서 간행된 『長壽滅罪陀羅尼經』의 끝에는 몽산의 법어인 「念佛話頭法」, 「念佛法語」가 필사되어 있다. 그리고 「蒙山行實記」, 불교경전을 요약한 「諸經撮要」, 고려인들과의 교류 사실을 보여주는 「法門景致」의 작품들로 구성된 23면의 몽산 관련 사료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몽산의 어록 관련 저술은 상당수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몽산의 『법어약록』은 그 서명의 일부에 ‘略錄’으로 기재되어 있어 ‘몽산법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원본이 실존하지 않은 이 책은 고려 후기에 전래되어 고려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몽산의 법어를 선별·편찬한 것으로서, 몽산의 법어 6편과 함께 나옹의 법어 1편을 합편하여 신미가 언해한 후 1467년 간경도감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그리고 16세기에 飜刻 및 改刻되어 다량 유통되었다. 몽산의 법어와 행장 등이 수록된 몽산 어록이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법어약록』이 현존하므로 적어도 본래 몽산에 관한 문집 자료는 현재 약록보다 많은 분량이 유통되었음에 틀림없다.²⁾ 『법어약록』, 『육도보설』 등 조선 전기 유행했던 몽산의 저술은 『어록』이나 『법어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엮거나 단독으로 유통시킨 형태이다. 몽산의 법어는 고려후기 전래되어 이미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나 전래한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어약록』은 고려 말의 승려 懶翁 惠勤(1320~1376)이 1350년 중국 평江 休休庵에 있던 원나라 승려 몽산 덕이를 찾아보고 돌아와서 몽산화상의 법어를 약술하여 기록해 온 것을 후에 엮은 책으로 보기도 한다.³⁾

고려 말 몽산의 법어는 중국에서 필사본, 간행본 등의 형태로 전해져 유통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조선 전기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 1403~1480)가 약록 및 국역하여 『법어약록』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2) 許興植,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서울: 창비, 2008), 55.

3) 남권희, “영남대학교 도서관 南齋文庫 소장 佛敎文獻의 서지 연구,” 『民族文化論叢』 제58집(2014), 204.; 김무봉,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의 국어사적(國語史的) 고찰(考察),” 『동악어문논집』 제28집(1993), 105.

2.2 사법어와의 관련문제

『법어약록』은 판본 조사 결과 다수가 『初發心自警文』과 『四法語』 등의 저술과 합쳐져 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판본은 전체 39종 가운데 6종에 불과했다. 『사법어』의 내용 편성은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蒙山和尚示衆」, 「古潭和尚法語」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40여 종의 판본이 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40여 종 가운데 시기가 가장 빠른 1375년 無爲菴本과 1400년 德奇庵本의 경우 「고담화상법어」 없이 3편의 법어로만 구성되어 있고 1441년 潤筆庵本에서 「고담화상법어」가 포함되어 비로소 사법어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위의 세 판본의 경우 「완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 권수제 아래 ‘侍者錄’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책을 편찬하는 데에 참여한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후 1467년에는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혜각존자 신미가 1441년 간행된 윤필암본을 저본으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것이다.⁴⁾ 1375년 판본은 몽산의 법어가 고려 말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다른 판본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사법어』 형성 과정과 언해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사법어』의 「완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는 완산 정응 선사가 몽산에게 信과 五戒, 趙州의 無字를 주제로 설한 법어이다. 「동산승장주송자행각법어」는 동산 승장주가 행각을 떠나는 제자에게 설한 법어로서 행각 시 유의해야 할 것과 바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몽산이 대중에게 설한 「몽산화상시중」은 고요함을 즐기고 부처의 宗旨에 통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마지막 몽산과 교류했던 혜감국사(慧鑑國師, 1249~1319) 만항의 법어인 「고담화상법어」는 參禪에 이르는 길과 이루었을 때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참선에 이른 후에는 인간과 하늘을 널리 제도하여 모두 부처가 되어야 할 것임을 설하고 있다. 완산 정응, 동산 승장, 고담화상은 모두 몽산이 가르침을 받거나 교류했던 인물들이며 4가지 저술 모두 參禪을 주제로 하고 있다.

몽산의 『법어약록』에는 대부분 『사법어』가 함께 수록되어 간행되는 경향을

4) 송일기,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書誌學研究』 제63집(2015), 63-90.

보이고 있어 몽산과 이 책의 편찬자들 사이에 일련의 법계 형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사법어를 편찬한 시자들은 몽산과 관계가 깊으며 그의 사상을 계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어』를 편찬한 시자들과 1467년 『법어약록』을 언해한 신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법어약록』의 최초 편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 후기 만항을 비롯하여 나옹과 보우 등 고려의 선사들은 중국의 선종계의 핵심 인물인 몽산과 지공선사 등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간화선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간화선 지침서인 『법어약록』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몽산이 고려의 승려들에게 내렸던, 흩어져 있던 법어들을 모아 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법어』 무위암본은 지공이 한역한 다라니 6종과 3편의 법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로는 나옹을 들 수 있다. 신미는 그의 출가나 법계가 모호하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나옹의 범맥을 이은 환암 혼수와 무학 자초로부터 함허 득통과 신미로 이어지는 사승관계로 파악하고 있다.⁵⁾ 『사법어』는 신미에 의해 1467년 간경도감에서 윤필암본을 저본으로 『수심결』과 함께 언해되어 간행되었다. 『법어약록』 또한 신미와 나옹의 제자들 의해 이때에 함께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몽산의 6편의 법어를 약록하고 나옹의 법어인 『시각오선인법어』를 마지막 부분에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어약록』은 간화선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신미가 승려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본 선서(禪書)로 『법어약록』을 활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옹이 문도 각오에게 설법한 법어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선전기 불교계가 나옹계가 주도하고 있었고 간경도감에서의 선서간행도 나옹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도 반영하고 있다.⁶⁾

5) 민덕식, “慧覺尊者 信眉의 家系와 生涯,” 『忠北史學』 제24집(2010), 58-61.

6) 강호선, “조선전기 『蒙山和尚六道普說』 간행의 배경과 의미,” 『동국사학』 제56집(2014), 112-117.

2.3 법어약록의 편성내용

현재 중국에 현존하는 몽산의 저술은 9편으로 이루어진 明抄本 『몽산화상보설』과 『육조대사법보단경』 休休菴刻本이 알려져 있다.⁷⁾ 『법어약록』은 현재 중국에는 전하지 않으며 한국에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어약록』은 단편으로 전해져 오던 몽산의 법어를 해각존사 신미가 편집하여 이를 국역 및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언해본은 「示古原上人」, 「示覺圓上人」, 「示惟正上人」, 「示聰上人」, 「無字十節目」, 「休休庵主坐禪文」 등 6편의 몽산 법어와 나옹 혜근의 법어인 「示覺悟禪人法語」로 편성되어 있다. 한문본은 나옹의 법어가 없으며 몽산의 법어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언해본과 한문본의 다른 점이다. 그러나 언해본 1577년 송광사본은 한문본과 내용 구성이 같은데 이것은 한문본을 저본으로 다시 언해한 것이다.

『법어약록』 중 「시각원상인」의 각원은 「법문경치」의 10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고려인이었고 「시충상인」의 충은 제자 가운데 고려인으로 이것은 몽산이 그에게 가르침을 보여준 것이다. ‘上人’은 상석에 앉은 사람을 의미한다. 부처, 부처의 제자, 보살 등을 가리키며 공부를 많이 한 지덕(智德)을 갖춘 고승(高僧), 대사(大師)를 말한다.⁸⁾ 설법의 대상이 고려의 고승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어록이 전해지다 고려에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은 언해본 송광사본을 제외한 『법어약록』 언해본과 한문본의 편성 체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법어약록』의 언해본과 한문본은 몽산의 6편의 법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해본의 경우 보제존자의 법어가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고 한문본에서는 독립적으로 『사법어』에 다른 법어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몽산과 나옹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옹의 법어가 중시되어 앞부분에

7)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 『中國古籍善本』 子部 冊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1115, 1117.; 周春生, 韋光燕, “休休庵本《壇經》版本考,” 『世界宗教研究』 第4期(2004), 37-40.

8) 원순, 『몽산법어』 (서울: 법공양, 2006), 14.

따로 합철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저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해본은 주로 『사범어』와 합철되어 있고 한문본은 여기에 『初發心自警文』을 앞부분에 수록하고 있다. 한문본이 대체로 시기가 늦은 것을 감안하면 조선 중기부터 고려 지눌(知訥, 1158~1210)의 『初發心自警文』이 이력교과로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법어약록』의 편성 내용

| 篇題 | 언해본 | 한문본 | 비고 |
|---------|-----|-----|--------------------|
| 示古原上人 | ✓ | ✓ | ※ 示覺悟禪人法語는 사범어에 수록 |
| 示覺圓上人 | ✓ | ✓ | |
| 示惟正上人 | ✓ | ✓ | |
| 示聰上人 | ✓ | ✓ | |
| 無字十節目 | ✓ | ✓ | |
| 休休庵主坐禪文 | ✓ | ✓ | |
| 示覺悟禪人法語 | ✓ | - | |

3. 언해본 및 한문본의 유통

3.1 언해본의 언해와 간행

『법어약록』은 세조가 설립한 간경도감에서 혜각존자 신미에 의해 1467년 처음 언해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후 총 10종이 중간된 것을 확인하였다.

언해본은 현재 11종이 현전하고 있는데 1566년 취암본과 1573년 용천사본, 1605년 원적사본은 새롭게 발굴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언해본 가운데 시기가 가장 이른 판본은 1467년 간경도감본이며 1605년 원적사본이 가장 나중에 개판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577년 송광사본을 제외한 10종이 나옹 혜근의 법어를 포함하고 있었고 전체 11종 가운데 6종이 『사범어』와 합철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표 2> 『법어약록』 언해본 조사 현황

| 연번 | 간행년 | 간행지 | 간기 및 합철 내용 | 소장처 |
|----|------|------|--|-------|
| 1 | 1467 | 刊經都監 | 成化三年丁亥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彰造 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 | 구 김민영 |
| 2 | 1517 | 孤雲寺 | 正德十二年丁丑季夏有日忠清道連山土孤雲寺開板 法語+刊記+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十牛頌 | 고대육당 |
| 3 | 1521 | 楡岾寺 | 正德十六年十一月日金剛山楡岾寺開板 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刊記 | 동국대 |
| 4 | 1523 | 石輪庵 | 嘉靖二年癸未正月日誌慶尙道豊基地小伯山石輪庵開板 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刊記 | 국립도서관 |
| 5 | 1525 | 深源寺 | 嘉靖四年乙酉夏黃海道黃州地慈悲山深源寺留板 希世書 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刊記 | 고대만승 |
| 6 | 1535 | 氷鉢庵 | 嘉靖十四年乙未春二月日平安道寧過地妙香山氷鉢庵開板 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刊記 | 고대만승 |
| 7 | 1543 | 中臺寺 | 嘉靖二十二年癸卯六月日全羅道鎭安地聖壽山中臺寺開板 法語+刊記+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 | 계명대 |
| 8 | 1566 | 鶯菴寺 | 嘉靖四十五年日全羅道淳唱地靈鶯山鶯菴開板 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刊記 | 불갑사 |
| 9 | 1573 | 龍泉寺 | 萬曆元年癸酉孟夏初八日全羅道潭陽府地秋月山龍泉寺開刊 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刊記 | 개인 |
| 10 | 1577 | 松廣寺 | 萬曆五年丁丑季夏日順天地曹溪山松廣寺留板 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보림사 |
| 11 | 1605 | 圓寂寺 | 萬曆三十三年甲辰慶尙道聞慶地清華山圓寂寺 蒙山和尚法語略錄(普濟尊者法語)+刊記 | 고대만승 |

1467년 간경도감본은 현재 4건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널리 알려진 판본이다. 비록 간행 기록은 없지만 신미가 역결(譯訣)한 『사범어』가 합철된 『牧牛子修心訣』이 1467년(世祖 13)에 간행된 것을 미루어 1467년에 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판본은 1472년에 인수대비의 命으로 다시 간행되었으며 신미의 동생인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발문을 썼다. 이 판본은 가장 시기가 빠른 판본이며 몽산의 저술이 조선 전기 왕실에서 언해 및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경도감에서의 불전 간행에 있어서 언해불전의 대본이 되는 주석서는 별도로 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사실은 한문불전과 언해불전의 간행이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으며 불전이 설정한 독자층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

게 한다. 언해불전은 『선종영가집언해』, 『수심결언해』, 『사범어언해』의 선서가 중심이 되었고 따로 한문본으로 간행되지 않았다.⁹⁾ 이러한 이유로 『법어약록』은 1467년에 언해본으로 최초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1517년 고운사본은 현전 판본을 확인한 결과 고려대 소장본의 경우 뒷부분에 『蒙山和尚法語』와 『無字指示』가 수록되어 있었고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鼎州梁山廓庵和尚十牛圖頌并序』가 포함되어 판본의 다양한 합철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고운사본은 간경도감본의 8행17자와는 다른 7행18자로 흑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간경도감본과는 다른 계통임을 알 수 있다.

1566년 취암본은 고운사본과 같은 판식을 보이며 사범어와 합철되어 있다. 몽산의 다른 저술 『육도보설』의 유일한 언해본 또한 1567년 취암에서 간행된 바 있다. 취암본은 지방 사찰의 언해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해본의 판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법어약록』 언해본의 판식 현황

| 연번 | 판본 | 광곽/계선 | 행자수 | 흑구 | 어미 | 비고 |
|----|-----------|--------|-------|----|--------|----|
| 1 | 1467 刊經都監 | 四周雙邊/有 | 8行17字 | 無 | 內向黑魚尾 | |
| 2 | 1517 孤雲寺 | 四周單邊/有 | 7行18字 | 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3 | 1521 楡帖寺 | 四周雙邊/有 | 8行17字 | 無 | 內向黑魚尾 | |
| 4 | 1523 石輪庵 | 四周雙邊/有 | 8行17字 | 無 | 內向黑魚尾 | |
| 5 | 1525 深源寺 | 四周雙邊/有 | 8行17字 | 無 | 內向黑魚尾 | |
| 6 | 1535 水鉢庵 | 四周單邊/有 | 7行18字 | 無 | 內向黑魚尾 | 合綴 |
| 7 | 1543 中臺寺 | 四周單邊/有 | 7行18字 | 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8 | 1566 鷲菴 | 四周單邊/有 | 7行18字 | 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9 | 1573 龍泉寺 | 四周單邊/無 | 8行17字 | 無 | 內向黑魚尾 | 合綴 |
| 10 | 1577 松廣寺 | 四周單邊/有 | 7行15字 | 無 | 三葉花紋魚尾 | 合綴 |
| 11 | 1605 圓寂寺 | 四周單邊/有 | 7行18字 | 無 | 三葉花紋魚尾 | |

판식은 4종이 사주쌍변, 7종이 사주단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573년 용천사

9) 김기중, “15세기 불전언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 간경도감본 언해불전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8집(2012), 109-115.

본을 제외하고 모두 계선이 있다. 행자수는 8행17자, 7행18자가 비슷한 비율로 주류를 이루었고 1577년 송광사본만 7행15자였다. 후구는 1517년 고운사본, 1543년 중대사본, 1566년 취암사본에서만 보이고 있다.

행자수를 기준으로 계통 관계를 살펴보면 8행17자 간경도감본계의 왕실 계통, 7행18자 고운사본계를 중심으로 한 지방사찰 중심의 계통, 7행15자 송광사본계의 한문본을 저본으로 다시 언해된 계통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언해본의 계통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법어약록』 언해본 계통도

3.2 한문본의 재판과 간행

한문본은 28종이 현전하고 있다. 1525년 대광사본이 가장 시기가 이른 판본이며 이 후 17세기까지 활발히 간행되었고 이후에는 간행된 사례가 없다. <표 4>는 한문본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법어약록』 한문본 조사 현황

| 연번 | 관각년 | 사찰 | 간기 및 합철 사항 | 소장처 |
|----|--------|-----|--|-------|
| 1 | 1525 | 大光寺 | 嘉靖4年乙酉孟夏全羅道順天地母後山大光寺開板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구 김민영 |
| 2 | 1536 | 神興寺 | 嘉靖15年丙申孟夏日智異山神興寺重刊 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국립도서관 |
| 3 | 1540 | 釋王寺 | 嘉靖19年庚子孟秋日咸鏡道安邊土雪峯山釋王寺開板 初發心自警文+法語+(刊記)+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개인 |
| 4 | [1547] | 神興寺 | 時丁未[1547]春日智異山神興寺開板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개인 |
| 5 | 1563 | 廣興寺 | 嘉靖42年癸亥九月十五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法語六壇等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국립도서관 |
| 6 | 1563 | 雙峯寺 | 嘉靖42年癸亥孟夏日全羅道綾城地雙峯寺開刊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刊記)+蒙山和尚法語略錄 | 국립도서관 |
| 7 | 1565 | 蒼岫庵 | 嘉靖44年乙丑仲夏日全羅道扶安地過山蒼岫庵開板 誠初心學人文+(刊記)+發心自警文+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蒙山和尚法語+(刊記) | 규장각 |
| 8 | 1566 | 普賢寺 | 嘉靖45年丙寅九月妙香山普賢寺開板 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晦堂禪師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동국대 |
| 9 | 1567 | 雙溪寺 | 隆慶元年丁卯櫻望月佛名山雙溪寺開板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晦堂禪師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보림사 |
| 10 | 1570 | 無爲寺 | 隆慶4年庚午暮春全羅道康津地無爲寺開刊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刊記)+蒙山和尚法語略錄 | 동국대 |
| 11 | 1570 | 徹窟 | 隆慶4年庚午日慶尙道智異山徹窟開刊 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보림사 |
| 12 | 1572 | 龍泉寺 | 隆慶6年壬申孟冬全羅道潭陽地龍泉寺開板 初發心自警文+法語+(刊記)+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 | 보림사 |
| 13 | 1572 | 表訓寺 | 隆慶6年12月金剛山表訓[寺]開板 初發心自警文+法語+(刊記)+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訓蒙要鈔 | 개인 |
| 14 | 1574 | 月精寺 | 萬曆2年甲戌季夏九月山月精寺開板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晦堂禪師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국립도서관 |
| 15 | 1579 | 神興寺 | 萬曆7年己卯夏智異山神興寺留鎮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동국대 |

| 연번 | 판각년 | 사찰 | 간기 및 합철 사항 | 소장처 |
|----|------|-----|---|---------------|
| 16 | 1583 | 德周寺 | 萬曆11年癸未季冬日忠清道忠州地東面月岳山德周寺開板 | 송광사 |
| | | |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
| 17 | 1584 | 開心寺 | 萬曆12年 忠清道瑞山地伽伽山開心寺新刊 | 개인 |
| | | |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
| 18 | 1588 | 雲門寺 | 萬曆16年戊子正月慶尙道清道土雲門寺開板 | 개인 |
| | | | 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
| 19 | 1603 | 能仁菴 | 萬曆31年癸卯冬智異山能仁菴開判移鎮雙溪寺 | 국립도서관 |
| | | | 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
| 20 | 1605 | 栗寺 | 萬曆乙巳春忠清道雜山栗寺刊板 | 개인 |
| | | |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
| 21 | 1608 | 松廣寺 | 大明萬曆36戊申八月日順天府松廣寺重刊 | 동국대, 국립도서관 |
| | | | 法語+普濟尊者法語+(刊記)+蒙山和尚法語略錄 | |
| 22 | 1631 | 瑞峯寺 | 崇禎4年辛未九月日京畿瑞峯寺開板 | 화봉문고 |
| | | | 發心修行章+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
| 23 | 1633 | 釋王寺 | 崇禎6年癸酉7月日咸鏡道安邊土雪峰山釋王寺開刊 | 규장각 |
| | | | 初發心自警文+法語+普濟尊者法語+晦堂禪師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 | |
| 24 | 1634 | 龍腹寺 | 崇禎甲戌3月日龍腹寺開判 | 국립도서관 |
| | | | 初發心自警文+(刊記)+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念佛因由經 | |
| 25 | 1635 | 龍藏山 | 崇禎8年乙亥4月日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山開判 | 개인 |
| | | | 法語+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刊記)+禪家龜鑑 | |
| 26 | 1636 | 普賢寺 | 大明崇禎9年丙子十月日青松地母子山普賢寺重刊 | 구 김민영 |
| | | | 初發心自警文+法語+(刊記)+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 | |
| 27 | 1640 | 天冠寺 | 大明崇禎14年庚辰6月日天冠山天冠寺重刊 | 용흥사 |
| | | | 初發心自警文+蒙山和尚示衆+古潭和尚法語+普濟尊者法語+(刊記)+蒙山和尚法語略錄 | |
| 28 | 1680 | 普賢寺 | 康熙19年庚申5月日妙香山普賢寺開刊 | 보림사 |
| | | | 初發心自警文+法語+(刊記)+普濟尊者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 | |

한문본은 총 28종으로 모두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간행되었다. 한문본은 철굴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발심자경문』과 『사법어』, 보제존자의 법어와 합철되어 있고 몇몇 판본에서 『晦堂禪師法語』, 『禪家龜鑑』 등 기타 다른 저술이 보이

기도 한다.

『계초심학인문』은 禪敎一致를 위하여 定慧雙修를 주창했던 지눌의 저술 가운데 유일한 淸規書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종 역사에서 보더라도 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저술이다. 이 저술은 당시 헤이해져 가던 교단을 바로 잡고, 名利를 떠나 정진하여 정혜를 닦으며 眞人の 자취대로 살고자 하는 정신으로, 오직 승가 본연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였던 修禪社의 청규로 이용하고자 고려 21대 희종원년(熙宗元年, 1205) 겨울에 수선사의 落成과 함께 선포한 것이다. 또한 이 청규서는 한국선종의 청규 저술로는 그 효시가 된다.¹⁰⁾

이 글에서는 지눌의 계율관과 이상적 僧伽象이 잘 제시되고 있다. 그의 계율관으로는 佛戒를 수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킬 것과 범할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융통성과 조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회의 중요성과 화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¹¹⁾ 지눌의 이러한 사상은 몽산의 선교일치, 유·불·도 삼교일치 사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법어약록』과의 합본 사항은 바로 이러한 몽산과 지눌의 사상적 일치성이 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초발심자경문』은 16세기 후반에 합본되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언해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6세기 후반은 승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승려 교육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눌의 또 다른 저술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와 『禪源諸詮集都序』가 선조(宣祖) 전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¹²⁾ 또한 『발심수행장』은 1493년 화암사에서 『선원제전집도서』와 합철되어 간행되기도 하였다.¹³⁾

<표 5>는 한문본의 판식의 특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10) 鄭在逸, “高麗時代 淸規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64.

11) 권기중, “계초심학인문의 연구,” 『보조사상』 제12집(1999), 69-70.

12)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59.

13) 최동원, “조선시대에 간행된 『선원제전집도서』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65.

<표 5> 『법어약록』 한문본의 판식 특징

| 연번 | 판본 | 광곽/계선 | 행자수 | 흑구 | 어미 | 비고 |
|----|----------|--------|--------|-----|----------|----|
| 1 | 1525 大光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大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2 | 1536 神興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大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3 | 1540 釋王寺 | 四周單邊/無 | 9行20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 4 | 1547 神興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大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5 | 1563 廣興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 | 內向混魚尾 | 合綴 |
| 6 | 1563 雙峯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 | 內向混魚尾 | 合綴 |
| 7 | 1565 蒼岫庵 | 四周單邊/無 | 9行16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 8 | 1566 普賢寺 | 四周單邊/無 | 8行16字 | 大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9 | 1567 雙溪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大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10 | 1570 無爲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 11 | 1570 徹窟 | 四周單邊/無 | 8行17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 12 | 1572 龍泉寺 | 四周單邊/無 | 10行16字 | - | 內向混魚尾 | 合綴 |
| 13 | 1572 表訓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大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14 | 1574 月精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大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15 | 1579 神興寺 | 四周雙邊/無 | 8行18字 | 大黑口 | 內向2葉花紋魚尾 | 合綴 |
| 16 | 1583 德周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 17 | 1584 開心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 18 | 1588 雲門寺 | 四周雙邊/無 | 8行18字 | 大黑口 | 內向2葉花紋魚尾 | 合綴 |
| 19 | 1603 能仁菴 | 四周雙邊/無 | 8行18字 | - | 內向2葉花紋魚尾 | 合綴 |
| 20 | 1605 栗寺 | 四周雙邊/無 | 9行17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 21 | 1608 松廣寺 | 四周單邊/無 | 8行17字 | - | 內向2葉花紋魚尾 | 合綴 |
| 22 | 1631 瑞峯寺 | 四周雙邊/無 | 8行18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 23 | 1633 釋王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大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24 | 1634 龍腹寺 | 四周單邊/無 | 9行17字 | 大黑口 | 內向黑魚尾 | 合綴 |
| 25 | 1635 龍藏山 | 四周單邊/無 | 8行18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 26 | 1636 普賢寺 | 四周單邊/無 | 8行17字 | - | 內向2葉花紋魚尾 | 合綴 |
| 27 | 1640 天冠寺 | 四周單邊/無 | 8行17字 | - | 內向2葉花紋魚尾 | 合綴 |
| 28 | 1680 普賢寺 | 四周雙邊/無 | 8行17字 | - | 內向黑魚尾 | 合綴 |

한문본은 대부분이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으며 6종만이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고 계선은 모두 없다. 또한 28종 가운데 11종에 흑구가 있고 대체로 내향흑어미를 보이며 6종이 화문어미로 되어있다. 행자수 부분에서는 10행16자의 용천사본을 제외하고 11종의 판본이 8행, 16종의 판본이 9행으로 인쇄되었고 字數는 17에서

18자가 주류로 나타났다.

계통 형성에 있어서는 行數를 기준으로 8행본과 9행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9행본이 16종으로 6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한문본을 行數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법어약록』 한문본 계통도

『법어약록』은 언해본 11종, 한문본 28종으로 총 39종이 현전하고 있다. 39종의 판본은 行(字)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두 3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1종의 판본이 존재하는 계통을 제외하면 각각 2가지 계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판본의 전래 상황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어약록』은 언해본은 보제존자의 법어를 포함, 『사법어』와 합철되어 전해지고 있고, 한문본은 여기에 『초발심자경문』이 합철된 상태로 현전하고 있다. 합철된 사항을 통해 『법어약록』이 고려와 조선의 불교계에서 갖는 의미와 그 전래를 찾을 수 있다.

4. 현전 판본의 서지적 분석

4.1 간행시기 및 지역 분석

4.1.1 간행 시기 분석

아래의 <표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39종의 판본은 15세기에 1종, 16세기에 70%에 가까운 27종이 간행되었다. 27종의 판본들은 전반기에는 언해본, 후반기에는 한문본이 집중 간행된 것이 특징이다. 17세기에는 9종이 간행되었는데 1종을 제외하고 모두 한문본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과 특정 사찰을 중심으로 언해본이 주로 간행되었고 점차 지방 사찰을 중심으로 한문본이 활발히 간행되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한글 보급과 조선 전기 승려들의 교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문본은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없으며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1525년에 간행된 대광사본이다. 16세기 후반부터 활발한 간행을 보이는 한문본은 전반기에 4종, 후반기에 50%의 14종, 17세기에는 36%에 이르는 10종이 간행되었다. 『법어약록』 간행 경향이 언해본 중심에서 한문본 중심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으며 17세기 이후 간행된 판본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표 6> 『법어약록』 39종의 시기별 분석

| 간행 시기 | | 관중 | 언해본 | 종수 | 비율 (%) | 한문본 | 종수 | 비율 (%) |
|--------------------------|----------------|----|--|----|--------|---|----|--------|
| 15세기(1,3) ¹⁴⁾ | | | 1467년(刊經都監) | 1 | 9 | - | - | - |
| 16세기 (27,69) | 전반기 (10,26) | | 1517년(孤雲寺) 1521년(楡岾寺) 1523년(石輪庵) 1525년(深源寺) 1535년(氷鉢庵) 1543년(中臺寺) | 6 | 55 | 大光寺(1525년) 神興寺(1536년) 釋王寺(1540년) 神興寺(1547년) | 4 | 14 |
| | 후반기 (17,44) | | 1566년(鷲菴寺) 1573년(龍泉寺) 1577년(松廣寺) | 3 | 27 | 雙峯寺(1563년) 廣興寺(1563년) 蒼岫庵(1565년) 普賢寺(1566년) 雙溪寺(1567년) 徹窟(1570년) 無爲寺(1570년) 龍泉寺(1572년) 表訓寺(1572년) 月精寺(1574년) 神興寺(1579년) 德周寺(1583년) 開心寺(1584년) 雲門寺(1588년) | 14 | 50 |
| 17세기(11,28) | | | 1605년(圓寂寺) | 1 | 9 | 能仁菴(1603년) 栗寺(1605년) 松廣寺(1608년) 瑞峯寺(1631년) 釋王寺(1633년) 龍腹寺(1634년) 龍藏山(1635년) 普賢寺(1636년) 天冠寺(1640년) 普賢寺(1680년) | 10 | 36 |
| 전체(39,100) | | | | 11 | 100 | | 28 | 100 |

14) 괄호(종수, 전체비율) 안의 숫자는 종수 및 전체비율을 의미하며 아래 지역별 분석표도 이와 같음.

이것은 17세기 중반 이후 당시 불교계에서 편양계를 필두로 四溟 및 浮休系 모두가 태고법통설로 통일되었던 현상과 관련될 것이다. 이들은 태고 보우가 임제종의 석옥(石屋) 청공(淸珙, 1272~1352)에게서 법을 이은 적통임을 강조하면서 고려에 직접 법통을 전수한 바 없는 몽산은 제외시켰던 것이다. 당시 사상계에 불교 있던 小中華의식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4.1.2 간행 지역 분석

이 장에서는 시기별 분석에 이어 39종의 판본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표 7> 『법어약록』 39종의 지역별 분석

| 간행처 | 판종 | 언해본 | 종수 | 비율 (%) | 한문본 | 종수 | 비율 (%) |
|------------|----|---|----|--------|--|----|--------|
| 朝鮮 王室(1,3) | | 刊經都監(1467년) | 1 | 9 | - | - | - |
| 江原道(2,5) | | 楡岾寺(1521년) | 1 | 9 | 表訓寺(1572년) | 1 | 4 |
| 京畿道(2,5) | | - | - | - | 瑞峯寺(1631년) 龍腹寺(1634년) | 2 | 7 |
| 慶尙道(6,15) | | 石輪庵(1523년) 圓寂寺(1605년) | 2 | 18 | 廣興寺(1563년) 徹窟(1570년) 雲門寺(1588년) 普賢寺(1636년) | 4 | 14 |
| 全羅道(16,41) | | 中臺寺(1543년) 鷲菴(1566년) 龍泉寺(1573년) 松廣寺(1577년) | 4 | 36 | 大光寺(1525년) 神興寺(1536년) 神興寺(1547년) 雙峯寺(1563년) 蒼岫庵(1565년) 無爲寺(1570년) 龍泉寺(1572년) 神興寺(1579년) 能仁菴(1603년) 松廣寺(1608년) 龍藏山(1635년) 天冠寺(1640년) | 12 | 43 |

15) 채상식, “1608년 松廣寺 重刊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 연구,” 『서지학연구』 제47집(2010), 318-319.

| 간행처 | 판종 | 언해본 | 종수 | 비율 (%) | 한문본 | 종수 | 비율 (%) |
|------------|----|------------|----|--------|---|----|--------|
| 忠淸道(5,13) | | 孤雲寺(1517년) | 1 | 9 | 雙溪寺(1567년) 德周寺(1583년) 開心寺(1584년) 栗寺(1605년) | 4 | 14 |
| 平安道(3,8) | | 水鉢庵(1535년) | 1 | 9 | 普賢寺(1566년) 普賢寺(1680년) | 2 | 7 |
| 咸鏡道(2,5) | | - | - | - | 釋王寺(1540년) 釋王寺(1633년) | 2 | 7 |
| 黃海道(2,5) | | 深源寺(1525년) | 1 | 9 | 月精寺(1574년) | 1 | 4 |
| 전체(39,100) | | 언해본 | 11 | 99 | 한문본 | 28 | 100 |

『법어약록』 전체 39종에 대한 지역별 간행 모습을 살펴보면 조선 왕실에서 간행된 판본이 1종, 강원도 2종, 경기도가 2종이며 경상도가 6종이었다. 전라도는 16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도는 5종으로 경상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평안도 3종, 함경도 2종, 황해도가 1종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40%에 해당되는 판본이 간행되었고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각각 15, 13%에 해당되는 비율이 간행되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라도 지역 사찰에서의 간행 활동이 활발한 것은 『법어약록』뿐만 아니라 『육도보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록 2종류의 저술에서만 보이고 있는 현상이나 몽산의 저술이 많지 않고 다수의 판본이 실재하는 것은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선 전기와 임란 직후 지리산은 지눌의 선교점수의 유풍을 잇는 승려들의 수행처였다. 대표적으로 지리산 벽송사는 벽송(碧松) 지엄(智嚴, 1464~1534)의 수행처이자 그 이후 부휴(浮休) 선수(善修, 1543~1615)와 청허(淸虛) 휴정(休靜, 1520~1604) 그리고 그들의 문도들이 禪修行에 정진한 지역으로 조선 불교계를 주도한 인물들을 배출한 발원지이다. 또한 1608년 전후 송광사에서 근 20여 종의 불서를 집중 간행하였는데 지눌과 서산의 저술이 주를 이루며 보조 지눌을 계승하면서 1610년에 이르러 대단한 불교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¹⁶⁾ 이러한 조선 전기와 임란 직후의 전라도 지역의 불교계

16) 고익진,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佛敎學報』 제22집(1985), 203-212.; 오경후,

상황 그리고 그들과 몽산의 사상적 일치는 전라도 지역 사찰에서 몽산의 저술의 활발한 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엄의 『訓蒙要鈔』, 휴정의 『禪家龜鑑』이 합철된 책이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전체적인 지역별 분석을 보면 『법어약록』이 왕실을 비롯하여 전국 사찰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39종 가운데 전라도 지역에서 41%에 해당되는 다수의 판본이 간행된 것을 통해 몽산의 저술이 조선 전기 전라도 지방 사찰에서 활발히 간행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¹⁷⁾ 왕실에서 간행된 판본은 언해본으로 『법어약록』이 국가적으로 중요시 되었던 저술이었으며 불경 언해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조선 전기에서 더 올라가 고려 시대 말기 몽산 사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법어약록』이 전국 8도에서 간행된 사실을 미루어 국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저술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4.2 간행 참여자 분석

이 장에서는 39종의 『법어약록』 간행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간행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언해본과 한문본, 기능자와 조연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참여자들의 다른 불서 간행도 확인하였다.

언해본의 참여자를 살펴보면 11종의 간행에 각수 15명, 연판 및 기타 역할이 5명, 화주가 12명, 공양의 역할은 4명이 참여하여 총 36명이 참여하였다. 언해본의 경우 참여자들의 사찰간의 이동은 없으며 각자의 사찰에서만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한 사찰에서 2명에서 6명 정도의 참여자가 간행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였다. 각수의 역할은 1명에서 최대 5명 정도가 맡았고 간행 활동에 있어 각수와

“조선후기 벽송사의 수행전통과 불교사적 가치,” 『한국학연구』 제36집(2015), 525-548.
; 채상식, “1608년 松廣寺 重刊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 연구,” 『서지학연구』 제47집(2010), 295-320.

17) 송일기, 김은진,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六道普說』 板本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집 제3호(2011), 207-233.

화주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판본의 간기에 이 역할이 빠짐없이 나타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법어약록』 언해본 간행 참여자 현황

| 板本 | 技能者 | | 助緣者 | |
|-----------|-----------------------|-------------------------------------|------------|--------|
| | 刻手 | 鍊板 | 化主 | 供養 |
| 1467 刊經都監 | | (書 安惠, 朴耕), (1472년 後刷本 金守溫 跋) | | |
| 1517 孤雲寺 | 希世 | 性會 | 覺峻 | 能印, 三應 |
| 1521 楡岾寺 | 罔祖, 覺連 | | 戒淳, 性均, 罔允 | |
| 1523 石輪庵 | | | 信章 | |
| 1525 深源寺 | 義安, 義浩 | | 圓空 | |
| 1535 水鉢庵 | 印岑 | 道先 | 學玄, 雪仁, 信戒 | |
| 1543 中臺寺 | 儀罔, 天印, 仁惠 | | 雪峯 | |
| 1566 鷲菴寺 | 正云 | | 先揖 | 戒還, 天文 |
| 1573 龍泉寺 | 坦熙, 行靑, 坦珠, 允悟, 雪岑 | | 慧澄 | |
| 1577 松廣寺 | 없음 | | | |
| 1605 圓寂寺 | 없음 | | | |
| 11종 | 15명 | 5명 | 12명 | 4명 |
| | 36명 | | | |

1573년 용천사본의 경우 다른 판본에 비하여 5명의 많은 각수가 참여하였다. 1572년 용천사의 한문본은 각수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위의 5명의 각수가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한문본의 참여자 현황이다.

<표 9> 『법어약록』 한문본 간행 참여자 현황

| 板本 | 技能者 | | 助緣者 | |
|----------|--------------------------------------|---------------------------|--------|--------------------------------|
| | 刻手 | 鍊板 | 化主 | 供養 |
| 1525 大光寺 | 法浩, 道信, 戒心 | 玉明 | | 敬貞, 仁孫 |
| 1536 神興寺 | 戒心, 戒珠, 惠嘗, 信崇 | | 崇一 | 信浩, 明月 |
| 1540 釋王寺 | 學玲 | (書寫 玉賢) | 學玲 | |
| 1547 神興寺 | 信崇, 信儀, 道雲 | | 崇一 | 世浩, 善正, 信浩 |
| 1563 廣興寺 | 思湜 | | 惠元, 三印 | 崇隱, 性修, 春朴 |
| 1563 雙峯寺 | 玄敏, 法雲 | | 性宗 | 信修, 天寶 |
| 1565 蒼岫庵 | 彥琪 | 守仁, (書寫 印彥) | 彥琪 | 春伊, 迎命 |
| 1566 普賢寺 | 債湜 | 香日 | 玄默 | 道安 |
| 1567 雙溪寺 | 惠淳, 妙庵 | | 印正 | 惠默 |
| 1570 徹窟 | 없음 | | | |
| 1570 無爲寺 | 性明, 法輪, 玉晶 | | 淡俊 | 玄機 |
| 1572 龍泉寺 | | (書 義軒) | | |
| 1572 表訓寺 | 智元, 信雲, 敬敏 | | 智行, 敬禪 | |
| 1574 月精寺 | 崇雨, 天鑑, 佛眼 | | 智仁 | 玉玲 |
| 1579 神興寺 | 粹然, 戒祖, 坦衍, 戒惟, 圓裕, 勝牛, 敬元, 自正 | (書 普願) | 性悟 | |
| 1583 德周寺 | 聖賢 | 太田 | 戒默 | 敬熏 |
| 1584 開心寺 | 廣惠 | 妙淳, 戒禪 | 金荷蓮 | 鍊惠 |
| 1588 雲門寺 | 義連, 宗元 | | 弘印 | 熙璨 |
| 1603 能仁菴 | 應俊, 惠寬, 勝熙, 絕玉, 眞義, 玄鑒, 坦昱 | 良機 | 行淨, 湖鏡 | 性祐, (作務 海雄) |
| 1605 栗寺 | 智崇 | 雙日 | 申億從 | 今(令)一 |
| 1608 松廣寺 | 自敬, 智海, 性玉, 心印 | 義閔, (書 學明) | | 天運 |
| 1631 瑞峯寺 | 없음 | | | |
| 1633 釋王寺 | 崇祐, 妙安, 忠益, 學衍, 玉蓮 | 韓界民 | 靈民, 法能 | 法能 |
| 1634 龍腹寺 | 祖雲 | | | |
| 1635 龍藏寺 | 印和, 道慈, 林之先, 性玄, 成云, 法海, 金光立, 宝元, 玄淨 | (校 應俊, 書記 僅明) | 戒學 | 儀日, 三性, 儀圭, (持殿 慧淨, 別坐 勝梅, 克念) |
| 1636 普賢寺 | 釋玉 | 戒敏, (板材助緣 粹印, 宏勒, 瑞旭, 厚根) | 釋玉 | |
| 1640 天冠寺 | 楚玉 | | | |
| 1680 普賢寺 | 韓善熙, 朴永吉 | | 智雲, 元學 | 瑞寬, 賢益, 萬行 |
| 28종 | 68명 | 22명 | 25명 | 34명 |
| | 148명 ¹⁸⁾ | | | |

중복 참여자의 경우 진하게 표시함.

18) 중복되는 부분은 합계에서 제외함.

한문본 28종은 각수 68명, 연판 및 기타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은 22명, 화주는 25명, 공양의 역할은 34명이 수행하여 총 148명의 참여자에 의해 간행되었다. 참여자 가운데 각수의 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그 비중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여자 가운데 1525년 대광사본의 계심(戒心)은 1536년 신흥사본의 각수로도 나타난다. 또한 1603년 능인암본의 응준(應俊, 1587~1672)¹⁹⁾은 1635년 용장사본의 교정 역할을 담당하였다. 『법어약록』에서 사찰간의 이동은 이 두 사람만 보이고 있다.

신흥사에서는 1536년과 1547년, 1579년 3차례에 걸쳐 『법어약록』이 간행되었다. 1536년과 1547년 두 판본의 경우 신숭(信崇)이 각수로, 송일(崇一)은 화주로, 신호(信浩)는 공양주로 간행에 참여하였고 1579년에는 새로운 참여자들에 의해 『법어약록』이 간행되었다. 1540년 석왕사본의 경우 학령(學玲)이 각수와 화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경문(經文)은 옥현(玉賢)이 썼으며 이렇게 단 2명의 참여자에 의해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1635년 용장사본의 경우 각수가 9명, 기타의 역할이 2명, 화주가 1명, 공양주는 6명으로 총 18명이 『법어약록』 간행에 참여했다. 용장사본의 경우 석왕사본과는 대조적으로 간행의 규모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어약록』 참여자들 가운데 활발한 불서 간행 활동을 보이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많은 10종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법운(法雲)과 승희(勝熙)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법운은 쌍계사, 안심사, 신흥사, 용천사, 쌍봉사 등에서 불서 간행에 기능자로서 참여하였는데 2, 3년 단위로 사찰을 이동하면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법어약록』 이 외에 『불설아미타경』,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불정심다

19) 조선 중기의 스님으로 승병장이다. 호가 회은(晦隱·梅隱)이고 성은 기(奇), 남원 사람이다. 1602년 옥선(玉暹)에게 출가, 소요(逍遙) 태능(太能), 활연(活然), 벽암(碧巖) 각성(覺性) 등에게 법을 물었고 나중에는 각성의 법을 이었다. 그는 장군의 면모를 지녀서 출가는 했으나 경세(經世)에 뜻이 있었다. 승병장으로 여러 번 공을 세웠고 재산이 많았으나 가난한 이와 병든 이를 보면 아끼지 않고 내주었다. 1672년(顯宗 13) 3월 15일 성부산(聖浮山)에서 나이 86세, 법랍 71년으로 입적하였다(李政, 『韓國佛敎人名辭典』 (서울: 불교시대사, 1991), 223).

라니경』, 『진언집』, 『선종영가집』, 『대혜보각선사서』, 『대장일람집』, 『지장보살본원경』 등을 간행하였다.

승희는 17세기 초반 능인암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1603년에 5종, 1604년에 4종, 1611년에 1종으로 『대혜보각선사서』, 『묘법연화경』, 『몽산화상육도보살』, 『선원제전집도서』, 『고봉화상선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 등을 간행하였다. 인화(印和) 또한 17세기 초반 활동한 인물로 능인암을 비롯하여 송광사, 용장사, 천관사에서 불서를 간행하였다. 간행 불서를 확인해본 결과 9종으로 『선원제전집도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묘법연화경』,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 『수륙무차평등제의촬요』, 『불설천지팔양신주경』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계심(戒心), 응준(應俊), 승우(崇祐)는 8종의 불서를 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계심은 『법어약록』 1525년 대광사본과 1536년 신흥사 2종에 참여한 인물로 이 밖에 16세기 초 대광사, 신흥사, 용문사, 송광사, 도솔사 등을 다니며 8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나머지 應俊, 崇祐는 17세기 초반 활동한 승려로 승우는 석왕사, 응준은 능인암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조연자의 경우 행정(行淨(行正))과 호경(湖鏡)은 1603년과 1604년 능인암에서 『고봉화상선요』, 『선원제전집도서』, 『간화결의』, 『묘법연화경』,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수륙무차평등제의촬요』, 『대혜보각선사서』 등의 9종의 불서 간행에 화주로 참여하였다. 또한 혜순(惠淳)은 화주로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월인석보』, 『선종영가집』, 『묘법연화경』, 『선원제전집도서』 5종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 언

조선 전기의 간행 활동에서 불서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수의 불서가 왕실에서 언해되었고 조선 전기는 현재의 불교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몽산의 저술은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고려 말

몽산은 고려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고 현전하는 그의 모든 저술은 조선 전기에 간행되었다. 본 논문은 그의 저술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법어약록』 39종의 판본을 조사 및 분석한 논문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어약록』은 언해본 11종, 한문본 28종으로 총 39종이 현전하고 있고 대부분 『사법어』, 『초발심자경문』, 보제존자의 법어와 합철되어 있으며 기타 『회당선사법어』, 『선종영가집』 등이 수록된 책도 있다. 이것을 통해 院山 正凝, 東山 崇藏, 慧鑑國師 萬恒과의 직접적인 교류 및 영향, 懶翁和尚과의 관련성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저술이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어약록』은 현재의 판본 현황과 몽산의 다른 여러 법어의 존재를 통해서 1467년 해각존자 신미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필사본, 간행본으로 전해지던 몽산의 법어를 최초로 선별·약록·국역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어약록』은 모든 판본에서 『사법어』와 합철되어 있다. 그리고 언해본의 경우 마지막 부분에 나옹의 어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법어약록』 간행에 나옹의 제자들이 참여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법어약록』은 언해본, 1467년 간경도감본이 가장 시기가 이른 판본이며 1680년 보현사 한문본이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되었다. 약 200년간 39종의 판본이 간행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언해본을 중심으로, 중기에는 한문본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간행된 사실이 없는 것 또한 『육도보설』과 마찬가지로 『법어약록』에도 나타난다.

넷째, 지역별 분석에서는 41%에 해당되는 16종의 판본이 전라도 지역에서 간행되었으며 지리산을 중심으로 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몽산의 다른 저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조선 전기와 임란 직후 지리산은 지눌의 禪敎兼修 유풍을 잇는 碧松 智嚴, 浮休 善修, 淸虛 休靜 그리고 그들의 문도들이 선수행을 했던 지역으로 조선 불교계를 주도한 인물들을 배출한 발원지이다. 몽산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지리산 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법어약록』을 비롯한 몽산의 저술이 활발히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39종의 판본을 행자수를 기준으로 계통 분석을 한 결과 11종의 언해본

은 5종이 8행17자 간경도감본계, 5종이 7행18자 고운사본계, 1종이 7행15자 송광사본계로 3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송광사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가지 계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문본 28종은 11종이 8행본 보현사본계, 16종이 9행본 대광사본계, 1종이 10행본 용천사본계 3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언해본과 한문본은 각 2가지 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판본 전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로 『법어약록』의 참여자 분석에서는 언해본 11종의 간행에 각수 15명, 연관 및 기타 역할이 5명, 화주가 12명, 공양의 역할은 4명으로 총 36명이 참여하였다. 한문본 28종은 각수 68명 연관 및 기타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은 22명, 화주는 25명, 공양의 역할은 34명으로 총 148명이 간행에 참여하였다. 각수의 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그 비중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戒心, 應俊 2명 이외에 사찰간의 이동은 없었으며 2명에서 6명 정도의 참여자가 간행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였고 각수의 역할은 1명에서 최대 5명 정도가 맡았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 가운데 法雲, 勝熙, 印和 등은 10여 종에 이르는 다른 불서 간행에도 참여했던 것을 확인하였다. 『법어약록』 간행 참여자들의 다른 불서 간행 현황을 보면 『禪源諸詮集都序』, 『高峰和尚禪要』, 『禪宗永嘉集』 등의 선종 관련 불서와 의식집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밖에 『妙法蓮華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등을 간행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간행 사찰과 참여자들의 성격이 선종 관련 계통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호선. “조선전기 『蒙山和尚六道普說』 간행의 배경과 의미.” 『동국사학』 제56집 (2014). 112-117.
- 고익진.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佛敎學報』 제22집(1985). 203-212.
- 권기중. “계초심학인문의 연구.” 『보조사상』 제12집(1999). 69-70.

- 김기중. “15세기 불전언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 간경도감본 언해불전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8집(2012). 109-115.
- 김무봉.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의 국어사적(國語史的) 고찰(考察).” 『동악어문논집』 제28집(1993). 105.
- 남권희. “영남대학교 도서관 南齋文庫 소장 佛敎文獻의 서지 연구.” 『民族文化論叢』 제58집(2014). 204.
- 민덕식. “慧覺尊者 信眉의 家系와 生涯.” 『忠北史學』 제24집(2010). 58-61.
-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 송일기.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書誌學研究』 제63집(2015. 9). 63-90.
- 송일기, 김은진.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六道普說』 板本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집 제3호(2011. 8). 207-233.
- 오경후. “조선후기 벽송사의 수행진통과 불교사적 가치.” 『한국학연구』 제36집(2015). 525-548.
- 원 순. 『몽산법어』. 서울: 도서출판 법공양, 2006.
- 鄭在逸. “高麗時代 淸規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 周春生, 韋光燕. “休休庵本《壇經》版本考.” 『世界宗教研究』 第4期(2004). 37-40.
-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 『中國古籍善本』 子部 冊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 채상식. “1608년 松廣寺 重刊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 연구.” 『서지학연구』 제47집(2010. 12). 295-320.
- 최동원. “조선시대에 간행된 『선원제전집도서』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 許興植.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서울: 창비, 2008.

